

학사경고 대학생의 학습행동 유형 탐색

현용찬, 홍승희, 박정환*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Academic Warning Students' Learning Behavior Type Exploration

Yong-Chan Hyun, Seung-Hee Hong, Jung-Hwan Park*
The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학사경고 등 학업 저성취 학생의 선제적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심리검사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이념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4년제 대학생 중 2019년 2학기 학사경고자 지원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43명과 학사경고 경험이 없는 학생 30명 총 73명의 학습성격유형 검사결과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jamovi 1.1.9.0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t-test,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두 부류의 학생은 학습행동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학사경고 학생은 반항, 완벽, 잡념, 고군, 만족, 외골, 유형 중 만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는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과 학과의 불일치, 주변의 지지 부족, 심리적 갈등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학습기술 뿐만 아니라 심리와 정서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행동유형검사를 통하여 학업 저성취 학생을 예측하여 선제적 대응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사경고로 인해 발생하는 중도탈락자 예방과 상담프로그램 등 학교에서의 적절한 선제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psychological testing as a way to proactively support underachieving students. Among the four-year college students that participated in our study, 43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academic warning support program for the second semester of 2019 and 30 students who had no academic warning experience used the data from the study personality type test. For data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t-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jambi 1.1.9.0 to obtain the Pearson correlation. Studies have shown that the two classes of students differ in their learning behavior patterns. A student with a bachelor's degree warning scored high in the rest of the class, except for rebelliousness, perfection, mixed thoughts, hard work, satisfaction, single-mindedness and type satisfaction. This can be seen as a factor in the psychological conflict, such as the discrepancy between what one likes and what one studies, and lack of available support. It has been confirmed that psychology, emotional parts and economic support are needed as well as learning skills. In addi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roper preemptive support in schools, such as the prevention of dropouts and counseling programs.

Keywords : Learning Behaviors, Warning Students, Poor Academic Achievement, Drop Out, F Credits

본 논문은 2020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ung-Hwan Park(Jeju National Univ)

email: edu114@jejunu.ac.kr

Received August 31, 2020

Accepted December 4, 2020

Revised October 19, 2020

Published December 31, 2020

1. 서론

국가 교육과정에는 각 학령기에 따른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 학업성취 목표에 미달하거나 저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핀란드와 미국은 ‘아동낙오 방지(No Child Left Behind)’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2]. 핀란드는 아동낙오방지 정책을 시행한 결과 15세 이하의 평균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EU연합국의 평균 절반 이하의 수준[1]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02년 아동낙오방지법(NCLB)[2]에 학생의 성적 향상과 기초학력 보장에 대하여 명시하였다. 한국에서는 2016년, 2017년, 2019년 기초학력 보장 법안이 발의 되었다. 또한 교육부[3]는 2019년 3월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 며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듯 학업적 성취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국가차원에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대학은 학습목표 저성취 학생에게 학사경고라는 행정 처분을 통해 저성취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대학은 대학생이 성인으로서 각 영역의 전문적인 학문연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학생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적응과 정신건강[4]에도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즉 학사경고는 대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쳐 자퇴, 편입 등 중도탈락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학사경고 학생들을 위하여 대학들은 학습, 취업, 창업, 심리지원 등 대학생의 학생생활 관련 부서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의 대학생활과 학업을 지원[4][5]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사경고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학사경고의 원인과 학사경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에 관한 연구들이다[4]. 학사경고 학생과 일반대학생의 학습전략, 기술의 차이연구[6], 2018년 이후 학업성취와 관하여 심리적 요인을 찾는 연구[7][8],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학습행동유형에 대한 연구[7]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양정모는 그의 연구[8]에서 학습행동유형을 무기력형, 문제형, 평균형으로 분류하여 심리적 요인을 통합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기술과 심리적 요인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적 결론을 보완해 주는 연구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와 함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지원 활동이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그 결과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어떠한 의

미를 주는지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대학생의 학사경고 학생의 지원체계가 보다 견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업저성취로 인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특성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학습행동유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전과목에서 F학점 취득 학생의 심리적, 학습과정 등을 학습상담자의 입장에서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학습행동의 심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학습목표의 저성취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여, 그 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학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사경고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학습행동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F학점취득 개수는 학습행동유형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전 과목 F학점을 취득한 학생의 학습행동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학습부진으로 나타나는 학사경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업성취와 관련된 학습행동유형,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관련 연구를 탐색하고자 한다.

2.1 학업 저성취와 학사경고

학습부진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잘하지 않음[9]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내재적 능력과 실제 성취사이의 격차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반면 학업 저성취는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이나 적성,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수준을 의미하는 것[10]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옥분 등의 연구[6]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 따라 기준 이하의 학업성적을 취득하여 학사경고를 받는 것을 학업 저성취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학사경고자는 대학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업 저성취 대학생이다. 학사경고의 기준은 대학교마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의 J대학의 학사경고는 학칙 제61조(성적경고 등)[5]로 ‘1항. 학사과정 재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성적경고”라고 규정되었다. 1항은 학기당 성적 평점평균이 1.3(교육대학은 1.85, 의예과, 약학과 및 의

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2.0)에 미달한 자 2.6학점 이상 또는 3개 교과목(의예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2개 교과목) 이상의 성적이 F인 자'라고 규정짓고 있다.

2.2 학습행동유형

학습행동유형은 학습자의 학습행동 및 태도가 유사한 특성으로 구분짓는 형태이다. Heacox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의 특성을 조사한 연구[11]에서 학습자의 심리적 행동특성을 유형화하였다. 그는 심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학업에 실패하는 유형을 9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반항형, 적당형, 완벽주의형(이하 완벽형), 고군분투형(이하 고군현), 의존형, 잡념형, 싫증형, 만족형, 외골수형(이하 외골형)이다.

김만권 등[12]은 위 9가지 유형을 한국에서 타당화 연구를 통하여 사례수가 미비하거나 중복되는 내용 통합하여 6가지 유형으로 재구성 하였다. 그 결과 반항형, 완벽형, 고군현, 잡념형, 만족형, 외골형의 6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Heacox의 연구결과[11]를 바탕으로 김만권은 한국에서 연구한 결과 싫증형은 빈도수가 적어 제외하였다. 또한 만족형과 적당형은 학교에서 만족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두 유형의 검사결과의 구분이 되지 않고 중복되어 만족형으로 통합하였다.

Heacox[11]와 김만권[12]의 연구에 따르면 학업 저성취 학습자는 한가지 이상의 학습행동유형에서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즉 학습행동유형 특성의 수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의 종류가 많을수록 학업성적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행동유형을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비교한 연구[7], 그리고 무기력형, 문제형, 평균형으로 나누는 비교 연구[8]에서도 학습행동유형과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가 규명 되어있어 연구의 유사성이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의 구성은 J대학교 73명이다. 그중 학사경고 대학생은 학사경고자 지원프로그램 참가자43명, 비교집단은 일반 대학생 30명을 선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에 자료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허락을 득하였다. 또한 전과목 F학점 취득 학생은 추후 면담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허락도 득하였다.

Table 1. Frequency of F credits for bachelor alerts

Count of F Credits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1	1	2.3	2.3
2	6	14.0	16.3
3	19	44.2	60.5
4	7	16.3	76.7
5	3	7.0	83.7
6	3	7.0	90.7
7 or more	4	9.3	100.0
Total	43	100.0	Spec

학사경고 학생의 F학점 취득 과목의 수 분포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학사경고 연구대상자의 F학점의 과목 수는 평균 3.7개 중앙값은 3이다. F학점의 교과목 수는 3과목 19명 44.2%로 가장 많다. 또한 7과목 이상 전 과목(이하 전 과목) F학점은 4명 9.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사경고 기준이 3과목 이상으로 이에 해당하는 학생이 많다.

3.2 연구도구

김만권이 개발한 U&I학습행동유형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검사지는 6가지 학습행동유형을 구분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이다. 이는 1차 2000년 5월~6월까지 1차로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 433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하였다. 2차는 2000년 9월~10월까지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 7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표준화 하였다. 결과는 T점수로 환산하여 평균이 50, 표준편차는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첫째, 반항형은 학습에 대한 어느 정도 반감을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척도이다. 둘째, 완벽형은 학습할 때에 꿈꿈함과 완벽성에 대하여 알아보는 척도이다. 셋째, 고군은 학업에 대한 열의와 노력, 그리고 그것의 효율성을 알아보는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넷째, 잡념형은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알아보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만족형은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의 현재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 외골형은 특성과목 및 분야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14].

3.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U&I학습유형검사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하였고, jamovi 1.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사경고 학생과 일반 학생의 학습행동유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두 집단의 차이를 t검증을 통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F학점의 개수와 학습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 과목 F학점인 학생의 학습행동유형을 확인하였다.

4. 연구결과

4.1 학습행동 유형

학사경고 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t검증을 실시하였다. 학사경고학생 43명과 일반학생 30명의 검사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 간에는 6개 학습행동유형 중 완벽형을 뺀 나머지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항형은 평균 54.88과 39.47로 $p<.001$ 유의하였다. 둘째, 완벽형은 평균 50.11과 53.10으로 유의수준 $p<.05$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고균형은 평균 48.46과 41.23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넷째, 잡념형은 52.16과 43.67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다섯째, 만족형은 평균 46.91과 58.87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여섯째, 외곶형은 평균 55.39와 45.37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평균 차 순서는 반항형>만족형>외곶형>고균형=잡념형>완벽형 순이다. 완벽형을 제외한 학습행동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 F학점의 개수와 학습행동 간의 상관분석

F학점의 개수와 학습행동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반항형>만족형>고균형>외곶형>잡념형>완벽형 순으로 상관을 보였다. 내용을 보면 반항형, 고균형, 외곶형, 잡념형은 $p<.01$ 수준에서 양적 상관을 갖는다. 반면 완벽형과 만족형은 $p<.01$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갖는다.

4.3 전 과목 F학점 취득자 분석

전과목 F학점 취득자는 총 4명이고 1학년 3명 4학년 1명이다. 이들의 학습행동유형의 검사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2. Differences in learning behavior types

Spec	Academic Warning Students(n=43)		Normally Students(n=30)		t	Ranking
	M	SD	M	SD		
The Rebel	54.88	9.847	39.47	6.257	7.567***	1
The Stressed Learner	50.11	12.663	53.10	6.779	-1.176	6
The Struggling Student	48.46	9.038	41.23	7.025	3.674***	4
The Distracted Learner	52.16	10.610	43.67	8.260	3.674***	4
The Complacent Learner	46.91	10.235	58.87	7.143	-5.525***	2
The Single-Side Achiever	55.39	11.802	45.37	6.876	4.180***	3

* $p<.05$, ** $p<.01$, *** $p<.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Spec	The Rebel	The Stressed Learner	The Struggling Student	The Distracted Learner	The Complacent Learner	The Single-Side Achiever
Pearson correlation	.662**	-.143	.375**	.343**	-.516**	.374**

** $p<.01$

Table 4. Learning behavior type of all subjects F credit acquisition

Target	A	B	C	D
Gender	Male	Male	Female	Female
Grade	1	4	1	1
The Rebel	59	74	45	52
The Stressed Learner	34	50	53	60
The Struggling Student	47	54	52	54
The Distracted Learner	49	47	65	57
The Complacent Learner	47	37	53	49
The Single-Side Achiever	64	74	49	57

전과목 F학점 취득학생은 서론에서 예상한 학업 저성취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이들은 인터뷰하였다.

A와 B학생은 외곶형 64점과 74점을 반항형은 59점과 74점을 보였다. A학생은 관심분야인 전공공부를 하고자 대학에 들어 왔으나 1학년인 지금 교양과목만 있어 공부하는 이유를 못 느끼는데, 부모님은 교양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어 반감이 생긴 것이다. 또한 B학생은 4학년으로 그동안 부모님이 원하는 학과의 공부를 하고 있었으나 4학년이 되어서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를 찾아 다른 학과로 대학원을 가려하나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하였다. 두 학생 모두 외곶형과 반항형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C학생은 잡념형이 65점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학습에 전념하지 못한다고 하여 잡념형의 특성이 반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D학생은 완벽형과 잡념형, 외곶형이 57점 이상의 분포를 보였다. 이 학생은 대학선택에서 시작(외곶)된 가족과의 갈등(잡념)이 있으나 전공에 대한 학습열의(완벽)는 높았다. 따라서 세 유형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전 과목 F학점을 받은 학생은 57점 이상의 점수는 유의미하다는 김만권의 주장[12]에 모두 포함이 된다. 또한 1표준편차인 60점, 2표준편차인 70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학업성취와 학습관련 심리상태를 연구한 결과[7][8][11][12]와 동일하였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사경고 대학생 43명과 일반 대학생 30명

의 학습행동에서 두 집단의 학습행동유형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차이와 상관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 과목 F학점을 받은 학생의 검사결과와 면담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사경고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학습행동은 차이가 있다. 완벽형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소한 것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익히려는 것으로 지나치면 긴장으로 인하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너무 낮으면 학습하려는 의욕이 낮은 것으로 연구된 Heacox[11]와 김만권[12]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강훈[7]과 양정모[8]의 연구도 완벽형과 학업성취도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학사경고경험이 없는 학생은 만족과 완벽의 점수가 상위 점수인 반면 학사경고학생은 반항과 외곶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사경고자 연구를 종합한 결과[13] 학교생활의 부적응, 전공과 관심분야의 과목에 소홀함이라 한 연구 결과와 같다.

둘째, 학사경고학생의 F학점의 개수와 학습행동은 완벽형을 제외하고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연구문제 첫 번째의 결과와 같다. 반항과 외곶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생활부적응과 전공의 흥미직성 일치여부가 학사경고 학생의 특징이라고 한 선행연구[13]의 결과와 일치 하였다. 또한 강훈[7]의 연구결과 내재적동기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항, 외곶, 잡념이 부적상관을 보여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셋째, 전 과목 F학점을 받은 4명의 학생은 학사경고학생의 학습행동유형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사경고학생의 원인 및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13]한 결과와 강훈[7]과 양정모[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인터뷰 결과 전공 이외의 과목에 대한 학습거부(외곶형), 부모님과의 갈등(반항형), 가정폭력과 갈등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잡념형)로 그들의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검사결과에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학습과 관련된 심리상태를 학습행동유형으로 나타내고 검사결과를 활용한 수치와 학업성취는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사경고학생을 미리 예측하는 방안의 하나로 학습행동유형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검사를 통한 예측은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개인적, 가정적,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제한

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한 학교의 학사경고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행동유형의 검사와 전 과목 F학점을 취득한 4명을 인터뷰를 통하여 검사결과가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 하는 것에는 주의를 요한다. 그러므로 일반화를 위한 노력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학습행동유형 검사 후 개인면담을 통한 질적연구로 이어져 보다 많은 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S. H. Kim. Current status of support systems and programs for undergraduate students in Finland, Mailzine Overseas Education Trend #326 Planning Article, April, 2018.
<http://edpolicy.chedi.re.kr/cmm/fileDownload.do?nTbBoardArticleFileSeq=26921> (accessed October, 05, 2020)
- [2] Korean Law Education Center, Law stories for youth, Korean Law Education Center, 27, July, 2017
<http://www.lawedu.or.kr/bbs/board.php?tbl=bbs19&mode=VIEW&num=12&category=&findType=&findWord=&sort1=&sort2=&page=1>(accessed October, 05, 2020)
- [3] C. W. Han. Edu in News, Controversy over basic education is reigniting...The entire KSR "must abolish the bill" vs. the KFTA "Need the Basic Education Guarantee Act", Jun, 22, 2020.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dxno=30479> (accessed October, 05, 2020)
- [4] Y. J. Lee, H. J. Yang, S. H. Cho, "Issues on the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the college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9, no.1, pp. 161-184, 2017.
DOI: <http://dx.doi.org/10.17927/tkiems.2017.29.1.161>
- [5] J. K. Cha, T. H. lee, "A Review on the Trend of Domestic Researches and Support Methods for University Students under Academic Probatio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3, pp. 337-356, 2019.
- [6] O. B. Kim, Y. O. Joo, "Analyze the affective and learning strategy difference of engineering students under academic probation and othe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v.11 no.1, pp.25-31 2019. _
DOI: <http://dx.doi.org/10.14702/jpee.2019.11.1.25>
- [7] H. Kang, S. H. Han, J. H. Ku. "Study of Adolescents' Academic Personality Types, Learning Behavioral Types and Self-determinative Learning Motivatio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5 no.8, pp.419-429.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8.4919>
- [8] J. M. Yang. "A Study on the Profile Analysis of Learning Behavioral Patterns of Students at Local Universities - Focused on the case of A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4, no.4, pp.213-224 August. 2020.
DOI: <https://doi.org/10.46392/kjge.2020.14.4.213>
- [9] S. M. R. D. B. McCoach, "The underachievement of gifted students: What do we know and where do we go?", *Gifted Child Quarterly*, vol. 44, no. 3, pp.152-170, 2000.
- [10] E. Smith, "Understanding underachievement: An investigation into the differential attainment of secondary school pupil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24, issue 5, pp. 575-586, Jun 2010
<https://doi.org/10.1080/0142569032000127143>
- [11] Heacox, J. Up from Under-Achievement: How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Can Work Together To Promote Student Success, p144, Free Spirit Publishing Inc, 1991, pp.11-35
- [12] M. K. Kim, J. K. Han, K. H. Lee, Learning Counseling Expert Resources, p.105, Yonwoo Psychological Institute, 2001, pp.38-43
- [13] N. H. Kim. *An Empirical Study on Prediction of Academic Probation Using Learning Analytic*, Ph.D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pp.23-24.
- [14] B. R. Jeun, "Academic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having academic probation experiences and the Effect of learning consul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learning strategie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 no.9, pp.137-165, Oct. 2015.
UCI: G704-001586.2015.15.9.015

현 용 찬(Yong-Chan Hyun)

[정회원]



- 2014년 2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교육행정석사)
- 2018년 2월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수료
- 2014년 3월 ~ 현재 : 연우심리연구소 제주지부장

- 2017년 2월 ~ 현재 : 2006년 2월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2018년 4월 ~ 현재 : 제주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상담자문위원

<관심분야>

교육공학, 학습상담, 진로상담, 학습성적

홍 승 희(Seung-Hee Hong)

[정회원]



- 1986년 2월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문학사)
- 2006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석사)
- 2018년 8월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수료
- 1987년 9월 ~ 현재 : 중학교 교사
- 2016년 4월 ~ 현재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관심분야>

교육공학, 교육과정, 인성, 독서, 논술교육, 통일교육

박 정 환(Jung-Hwan Park)

[종신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육공학, ICT, Smart-Education